

꽃이 핀 자리에 잎이 돌아난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도착 직후 찍은 필자. 방탄 헬멧과 방탄 조끼로 무장한 모습

청와대가 이전하면서 ‘청와대 출입 기자’는 사라진 이름이 됐다.

그 이름의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가 됐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2001년 3월, 처음으로 출입기자가 됐을 때 나도 뿌듯했다.

주변 사람들은 ‘권력 가까이 있으니 대접을 받을 일이 많지 않겠느냐’, ‘대통령부터 여러 뉴스인물들을 쉽게 접하니 정보도 풍부하지 않겠느냐’ 하는 선부른 ‘해석’을 하며 축하해줬다.

나는 도합 만 6년, 4명의 대통령을 근접 취재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퍽퍽퍽 퍽퍽 청와대를 출입한 사진기자로서 이는 다만 ‘추측’과 ‘번역’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다.

대통령을 근접 취재하며 많은 국내외 현장을 오간 사진기자로서 ‘권력 주변’과 ‘쉽게 접하는 정보’는 나와 별 관계가 없었다.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가보거나, 세계적인 인물들을 만나 취재하는 경우 설레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진기자로 겪는 고난과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는 ‘빈약한 소득’일 따름이었다.

보도사진은 ‘뉴스 순간’의 다른 이름이다. 또는 ‘역사적 순간’의 대명사다. 네 명의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겪은 수많은 에피소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두 현장’을 되새겨본다.

(1) 2004년 12월8일

“이 비행기는 지금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파리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 전용기에 오른 노 대통령이 약 30분 후 기내 브리핑을 자청해 한 말이다.

전격적인 이라크 자이툰 부대 방문을 발표한 것이다. 전용기는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됐다. 춘추관 행정관들은 소리를 지르며 극비 보안을 신신당부했다.

긴급하게 취재인원을 구성했다. 논의 끝에 취재기자, 영상기자 이외 사진기자는 6명으로 정해졌다. 신문사 사진기자 단 4명, 통신사 2명.

예정에 없던 자이툰 부대 방문 취재가 보태져 귀국 시간이 만 하루 가까이 늦어진 탓에 나는 엄청 불만스러웠지만, 뉴스의 크기와 가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파리를 떠난 전용기는 쿠웨이트 공항에 도착했다. 활주로 옆에는 대한민국에서 극비리에 날아온 C-130 수송기가 두 대 대기하고 있었다. 한 대는 노 대통령과 수행단, 한 대는 기자단으로 채웠다.

중요한 과업을 마주한 영웅심과 컴컴한 새벽의 시간이 겹쳐 마치 고대 이아손 신화에 등장하는 ‘아르고 호’의 출정처럼 느껴졌다.

수송기에 오르자마자 꽤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했다. 수송기를 타고 바로 자이툰 부대에 도착하는데 왜 방탄장비를 입어야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수송기는 저공비행합니다. 적들은 상공 위에 비행체가 보이면 공중사격을 하곤 합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수송기 동승 안내요원이 비장한 표정으로 설명해 기자단을 비장하게 만들었다. 다행히 별 사건 없이 3시간 여 비행 끝에 자이툰 부대 인근에 착륙했다.

청와대 측은 부대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노 대통령의 동선과 행사 내용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과도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장병들과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한 취재 욕심으로 현장 분위기를 흐뜨리지 않도록 부탁했다.

노 대통령은 부대원과 함께 아침식사를 같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 내무반과 병원을 방문하고 단체인명촬영 등을 이어가며 약 4시간 동안 부대에 머물렀다. 기자단은 한 마디 말도, 한 장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했다. 그 탓에 4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혼이 쏙 빠졌다. 어딜 가나 터져 나오는 병사들의 활기와 함성이 이를 더했다.

거의 마지막 일정은 병사들과의 단체 기념촬영이었다. 기념촬영을 하지 않는 병사들은 길 아래쪽으로 길게 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다.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병사들이 흔드는 태극기와 길을 내려오며 환하게 웃는 노 대통령의 표정을 클로즈업해 한 앵글에 담는 것이었다.

망원렌즈가 적합해 렌즈를 갈아 끼우며 20여 걸음 먼저 내려오는데, 기념촬영을 마친 한 병사가 노 대통령을 따라오며 크게 소리쳤다.

“대통령님 한 번 안아 봐도 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경호관마저 어리둥절해 하던 순간, 병사는 자신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노 대통령을 번쩍 안고 한 바퀴 돌았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방문을 위해 한국 공군이 극비리에 쿠웨이트 공항으로 급파한 C-130 수송기 두 대 모습.

아! 내 기자 생애 제일 크게 ‘물을 먹는’ 순간이었다. 평생 잊지 못할 낙종의 짧은 시간이 몇 걸음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지만, 당황해 하며 서둘러 뛰어가는 동안 상황은 종료됐다.

사람의 기억은 좋았던 일보다 충격적인 일에 더 깊은 고리를 꿰는 듯하다. ‘아 어찌지, 어찌지’ 하던 그때의 당황과 체념과 배척의 순간이 여전히 생생하다.

취재를 마친 뒤에는 역순의 과정을 거쳐 쿠웨이트 공항에 도착했다. 딱 한 가지가 달랐다. 수송기에 오른 기자들은 안내요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공항에 도착한 즉시 기사와 사진, 영상을 송고하기 위해 노트북 작업을 미리 하느라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아손은 아르고 호를 타고 ‘황금 양털’을 얻었지만, 내 노트북엔 황금의 흔적마저 어렵곤했다.

노 대통령의 부대 방문 사실이 국내외에 알려진 건 수송기가 쿠웨이트 공항에 안착한 뒤였다. 예정시간에 전용기가 서울공항에 도착하지 않아 국내 정가 및 언론은 큰 혼란에 빠졌다는 후문이다.

(2) 2014년 3월26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가자 오바마 대통령은 곤혹스러웠다.

한일 관계가 극도의 대립과 외면으로 이어지던 2014년 3월이었다.

기회가 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세 정상이란 이름으로 참석했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 백악관 측이 발표했다.

“동아시아 평화 증진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헤이그 미국 대사관저에 한·일 정상을 초대했다.”

세 사람이 만나는 메가톤급 뉴스였다. 온 언론과 인터넷을 뒤덮을 뉴스였고, 한 자리에서 인사하는 세 정상의 모습이 담긴 장면은 역사적 사진이 될 것이었다.

몇 시간 뒤 청와대 측은 기자단에 취재지침을 전달했다.

‘세 사람이 처음 만나는 접견실에 펜 기자 취재 불허. 영상기자 촬영 불허. 사진기자 촬영 불허. 접견실의 모습은 3국 전속만 촬영함. 바로 이어질 3국 정상 기자회견부터 언론 공개’

‘전속’이란 미국 백악관, 일본 총리실, 청와대에 각각 속한 사진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세 사람이 만나 첫 인사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비공개라고?’

이는 사진기자에겐 특히 치명적이었다. 사진은 단 한 장으로 ‘핵심 뉴스’를 전달하는 수단인데, 이 경우 핵심뉴스는 세 사람이 한 장에 사진 속에서 악수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인사하는 모습.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를 소개하는 듯한 모습이다.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어이가 없었지만 미국 측의 결정이라 청와대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내가 사진기자실을 대표해 청와대 언론담당에게 협상안을 냈다.

“신원조회가 없다면 사진기자 중 한 명을 전속이라고 해서 입장시켜 달라.”

2시간 뒤 답변이 왔다.

“좋습니다. 1명 선정해 주시고 현장에서 신분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내가 들어가기로 했다.

행사 30분 전 현장에 도착했으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백악관 전속은 세 사람이 만나는 방에 이미 대기하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 전속은 건물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해당 국가 정상에 도착하면 뒤따라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미리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세 사람이 만나 인사하는 장면 취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만저만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을 대표해서 왔는데...’ 하는 책임감이 짓눌렸다. 조간신

문들은 1면을 비운 채 기다리고 있었다.

속으로 애태우던 중 아베 총리가 먼저 도착했고, 일본 전속은 조용히 뒤따라 들어갔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안전부절못하며 미국 측 안내요원에게 어설픈 영어로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아름다운 미국 대사관저 봄의 색깔 아래, 나 혼자 외롭게 서 있었다.

5분 후 약 1백 미터 전방에 박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오고 있었다.

그때 박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출입문 밖으로 대통령 통역관인 이성환 씨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국 고위 안내요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 통역관은 평소 행사 때마다 인사를 나누고 잠시라도 이야기를 하며 소통한 경우가 많아 친숙한 사이였다.

급히 이 통역관에게 다가가 빠르게 사정을 설명하며 옆의 미국 측 안내요원에게 말해달라고 했다. 차량은 천천히 움직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약 30미터 전방이었다.

이 통역관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나의 접견실 입장을 요청했다. 안내요원이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모든 기자들은 정상들의 정면에서 취재했으나, 필자는 접견실에서 취재한 뒤 따라 나왔으므로 옆쪽에서 취재할 수 있었다. 왼쪽 세 번째 카메라를 든 이가 필자.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나는 절박한 표정을 지으며 카메라를 가리켰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안내요원의 눈을 응시했다.

약 3초 후.

“OK. Come in. Hurry up!”

급하게 뒤따라가며 돌아보니 박 대통령이 차에서 막 내리고 있었다.

접견실에 입장하니 오바마와 아베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들어오자 오바마는 마치 두 사람을 소개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며 자연스럽게 악수를 권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인사말을 건네며 손과 손이 만나는 순간을 기다리던 그 10여 초는 내 기자생활에서 가장 긴장되는 ‘긴 시간’이었다. 손가락이 셔터를 누르면서부터 긴장은 사라지고 본능적인 ‘취재의 시간’에 몰입할 수 있었다.

접견실에 기자라고는 3국 통틀어나 혼자였기에 행사를 마친 뒤 필자는 취재기자들의 취재대상이 됐다. 세 사람이 만나는 순간의 표정과 대화가 기억나는지 물었고, 나는 최대한 기억을 꺼냈다.

몇 시간 뒤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의 몇몇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보도사진은 ‘한 장’이라는 결과물로 승부를 보는 영역이다. 흔히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한다. 사진기자는 현장에서 ‘한 장’의 사진을 위해 극도의 긴장 속에서 산다. 하물며 모든 신문이 1면을 비워놓고 기다리는 보도라면 그 긴장은 최고조에 이른다.

지나고 보면 1면을 채우는 일은 단발적인 일일 뿐이고 매 순간, 매 긴장 속에서 얻는 보도사진은 ‘역사’가 된다. 📷